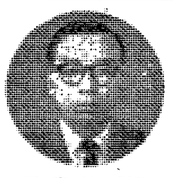
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王南都 編輯部長 李昇幹 印刷人 宋星赫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1~5 本社直通 ㉒8498
每週日發行 每週月曜日

# 學長등 一部 人事

法政大學長 張庚鶴 博士
農林大學長 孔泰勳 博士
博物館長 安啓賢 교수
科學館監 柳日永 교수

제1백63차 동국학원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法政·農林 兩대학의 학장을 박물관장과 과학관감도 새로 보임시켰다. 지난달 1일자로 補任발령된 학장은 신임 법정대학장에 張庚鶴교수(法博) 농림대학장에 孔泰勳교수(農博)이다. 아울러 空席중이던 박물관장직은 安啓賢(史學科) 교수가 부임했으며, 과학관감에는 柳日永(化工科) 교수가 각각 발령되었다.


張庚鶴 학장

孔泰勳 학장

安啓賢 관장

柳日永 관감

◇1916년 서울출생▲일본 京都帝國대학 법학과 卒▲美「인디애나」법과대학 卒▲동아대·한대·연대교수 역임▲동대교수 현재에 이름 ▲著書=「法學通論」「民法大意」外 다수
◇孔泰勳농림대학장

◇1914년 황해도출생▲동경농업대학 예과및 농학부 農藝化學科 卒▲서울대師大·空士·성대·중앙대·한대·연대교수 역임▲東大교수 현재에 이름▲한국동물학회 장 후임에 柵瀨三郎농림대학장 후임에는 孔泰勳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1927년 서울출생▲동국대 문학부 사학과卒 ▲동국대 대학원 불교과 석사과정이수 ▲美國 하바드 大學서 一年間연구 ▲東大문리대교수 ▲梨花女大·京畿大강사 ▲著書=「韓國文化史大系」(宗教篇) 「元曉의彌陀淨土往生思想」「李穡의 佛教觀」外다수
◇安啓賢박물관장

◇1922년 全北출생▲일본「군바껭기루후」공업전문학교 및 서울工大卒 ▲全北대 문리대 교수 ▲1968년東大교수 현재에 이름 ▲研究論文다수

◇柳日永과학관장

## 金총장에 감사패

### 閔문교、李秉東교수도

「전국대학생연합봉사단」회장인 본교 金東益총장과同동 사무국장 李秉東교수가 지난 3일2시 閔寬植문교부장관으로부터 농촌·봉사활동의 성과에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증정받았다.

날 문교부장관실에서 가진 이 표창식에서 閔문교장관은 예년에비해 높은성과를 거둔점과 梨花女大·京畿大강사 ▲著書=「韓國文化史大系」(宗教篇) 「元曉의彌陀淨土往生思想」「李穡의 佛教觀」外다수
◇安啓賢박물관장

## 「教學研修會」총회

### 海東高서、金총장등 참석

宗立學院聯주최

宗立學院聯合會(회장 金東益총장)주최 제3회「敎學研修會」가 지난5일 종립학교인 부산海東고등학교에서 열려 본교에서는 김총장、金東華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의 敎法師는 의무적으로 참가、敎學에관한 연구수업을 갖게되는 이 연수회의 지난1·2회 주제는 「敎學과연구수업」이였다. 한편 김총장일행은 6일 경남 양산통도사에서 열린 종립학원 제12차「秋季親善總會」에도 참석、冬季修練大會및 敎學研修會、儀式文統一보급등에 관해 토의했다.

## 總會長團 사표반려

### 總務·奉仕등 3個部長수리

지난달 22일安紀燮총학생회장을 비롯、16명의 전간부가일괄제출한 사표중 총무·봉사·응원부장등 3개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려되었다.

10·14데모 사태이후의 모든 결과에대해서 책임을 느껴 사표를 제출한이후 9일만인 지난 1일 金東益총장은 학생회간부를 불러 보다 건전한 학생활동을 당부하면서 대부분 잔부의 사표를 반려했다.

총무등 3개부장의 사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일단 수리되여 후임 총무부장에 朴昌仁(經濟3)군이內定되었으며 응원부장은 安총학생회장이 결의하는 한편 봉사부장은 적임자가없어 空席상태에 있다.

이번 사표반려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 학생지도 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장의 최종 단안으로 실행된것.

## 今週月曜講座

### 연사趙演鉉교수

8일의 월요강좌는 趙演鉉「국문과」교수의 「국제펜대회참가보고」로 중강당에서 열린다.

趙교수는 지난 9월一아일랜드에서 열린 국제펜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참가보고를 중심으로 「펜」대회의 내용·성격등을 역설하게 된다.

## 碩士논문發表會

### 行政大學院서

행정대학원에서는 오는8일부터 11일까지 「석사학위청구논문 발표회」를 행정대학원A세미나실에서갖는다. 발표대상은 71년도 석사과정 6시20분부터 9시까지다.

## 今一週言

睡蛇雲籠心月暗
行人到此盤迷程
笛中拈起吹毛利
雲自無形月自明

독사같은雲은구름 마음 달흐려,
도닥는 이 여기와서 길을 물라라,그 속에서 비수겁 빼어 들면,달빛 한번 빛나는 때 구름흔적 없어라.

—自菴文—

## 近世종교 現世性에"

### 中村元博士 강연회 성황

세계적인 불교학자인「나까무라、하지메」(中村元)박사의 초청강연회가 지난28일 「비교사상연구소」주최로 교양학부 視聽覺교육실에서 성대히 열렸다.

28일 오후2시 많은 학계인사와 불교학도、불교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동양근대사상의 여명」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中村元박사는 英語로 「동양의 불교사상이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에서 다같이 인생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결론을 도출할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天上天下唯我獨尊」은 자아의식의 확인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동양제국은 실로 협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것이 「홈」이라면서 『근대의특징적인 국면은 現世性』이라고 결론지었는데 동역은 徐景洙、비교사상연구소장이 담당했다.

또한 29일과 30일에는 대학원생을 위한 공개강의가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原始불교연구의 문제점」「大乘불교연구의 문제점」등의 주제로 열렸다.

한편 中村元박사는 徐景洙교수의 남대로 3일간의 「잡지의날」기념식에서 제5회 잡지상 유공상을 받았다.

「現代文學」社 主幹을 겸하고 있는 趙演鉉교수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文壇의 代表的인 文學評論家로 활약하면서、文學作品의 활발한 발표를 위하여 「文藝」誌에 이어 「現代文學」을 창간、그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 趙演鉉교수

### 雜誌『유공표창

문리대 趙演鉉(국문과·문학평론가)교수는 지난1일 신문회관 3층에서 열린 「잡지의날」기념식에서 유공상을 받았다.

趙교수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文壇의 代表的인 文學評論家로 활약하면서、文學作品의 활발한 발표를 위하여 「文藝」誌에 이어 「現代文學」을 창간、그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 「곤충生態」등 발표

### 李교수등、各학회서

본교 李海雲교수(農生物학)는 지난달22일 大學院에서 「害蟲防除에 있어 天敵生物을 보호할수있는 生物的防除와함께 총합적 防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그밖에 30일에는 中央大에서 가진 「한국동물생태학회」주최의 연구발표회에 참석、「한국동물생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가졌는데、이 발표는 강원도 영월군내에있는 「고씨굴」및 「용담굴」의 생물 조사를 정리한것으로 국내 최초인 「동굴탐험부」의 조사보고였다.

兩日의 연구발표에서 李교수는 「害蟲防除에 있어 天敵生物을 보호할수있는 生物的防除와함께 총합적 防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그밖에 30일에는 中央大에서 가진 「한국동물생태학회」주최의 연구발표회에 참석、「한국 동굴생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가졌는데、이 발표는 강원도 영월군내에있는 「고씨굴」및 「용담굴」의 생물 조사를

## 蔡碧岩이사장 渡日

### 4일 佛教·教育界 視察次

蔡碧岩 동국학원 이사장

일본 불교계및 교육계 視察하기 위해 지난4일 양 오후4시 校內外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김포공항에서 항공기편으로 渡日하였다.

蔡이사장은 지난달 28일 附設비교사상연구소의 초청강연차 내한했다가 귀국길에 오른 中村元(나까무라·하지메)박사와 同行、1개월간 滯日할 예정이다.

滯日중 蔡이사장은 일본 불교계의 현황과 불교종립학교및 大東文化대학등을시찰하면서 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蔡이사장은 본교의 이미지를 널리 심기 위하여 안내책자와 은석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一代記를 그린 「하얀코끼리」란 만화를 산불로 가져가 증단학교와의 유대를 굳히게된다.

그밖에 蔡이사장은 일본 불교계 및 교육계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김포공항에서 항공기편으로 渡日하였다.

蔡이사장은 지난달 28일 附設비교사상연구소의 초청강연차 내한했다가 귀국길에 오른 中村元(나까무라·하지메)박사와 同行、1개월간 滯日할 예정이다.

滯日중 蔡이사장은 일본 불교계의 현황과 불교종립학교및 大東文化대학등을시찰하면서 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蔡이사장은 본교의 이미지를 널리 심기 위하여 안내책자와 은석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一代記를 그린 「하얀코끼리」란 만화를 산불로 가져가 증단학교와의 유대를 굳히게된다.

그밖에 蔡이사장은 일본 불교계 및 교육계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김포공항에서 항공기편으로 渡日하였다.

## 秋季교직원 바둑대회

### 張四植·李昇熙씨 各組1위

東國棋友會(회장·李昇雨)주최 추계敎職員바둑대회가 지난 24일 총21명의 교직원이 참가한가운데 나누어 「풀리그」전을 벌였는데 3급이상 1급까지의 甲조에서는 9명이 참전、1등에는 張四植(과학관근무)씨가、4급이하의 을조에는 12명의 교직원이 승부를 겨뤄 李昇熙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수상자 명단

▲갑조=1위·張四植(과학관근무) 2위·李秉東(農業化學科) 3위·李昇雨(농대·농경과교수) 3위·李昇熙(농대·농학과교수)

▲을조=1위·李昇熙、2위·金基完(체육과교수)、3위·趙演鉉(문리대·국문과교수)

## 韓德政동문

### 알프스 派遣훈련

한국산악회 「알프스」파견 훈련등반대원인 趙德政(68년 운영생물과卒) 동문은 지난달28일 現地로 떠나기앞서 인사차 동국산악회에 들러 회원들의 격려와 환송을 받았다.

이날 嶺東九등국산악회장(국회의원)은 壯途에게 금뱃지를 증정하면서 장도를 격려했다.

## ROTC 제11기入團

### 지난1일、現3학년생

본교 제112 ROTC 제11기(現3학년생)후보생 입단식이 지난1일오전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金東益총장을 비롯、李聖泰 陸軍훈련단장과 학처장등 교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입단식에서 김총장은 『한손에는 총검한손에는 「펜」을 잡아 지리멸렬한 학원분위기를 일소하고 학원의 정상화에 기여해 줄것』을 당부했다.

계속된다.

그밖에 蔡이사장은 일본 각지의 대학들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면서 본교와의 유대강화와 상호교류에 힘쓰게 될것이다.

## 體典綜合 평가회

### 有功者 표창식도 가져

27일

제2회 「동국학원종합체육대회 평가보고회및 各級학교 有功者 포창식」은 지난27일 오후4시 蔡碧岩이사장(同대회장)을 비롯하여 3백여 교직원및 각급학교 관계교사들이 참석한가운데 행정대학원 휴게실에서 있었다.

지난해 제1회때와비교、운영성과등의 검토와 결산보고를 가진 이 자리에서 비계획성、論功行賞의 非합리성등이 지적 되었다.

또한 요망사항으로는 경기종목의 범위 확대 ②교육적인 단체演技를 1校 1종목이상으로 ③경기일자는 5月 「부처님 오신날」前後로 ④期間은 2일 내지 3일간으로 ⑤운동장도 서울운동장에서 가질것등이 각각 제의되었다.

총 1백55만원에 달하는 예산중 1백47만7천2백원이운영·시설·시상비등으로 결산되었으며、아울러 새로이 마련된 비품목록이 잔액비용으로 보고되었다.

◇제2회동국학원종합체전 공로포창자는 (괄호안의 소속명)

▲김기완(사대 체육과교수)·체육대회기획위원장) ▲박재희(학생과지도주임) ▲강창순(교양학부 사무주임) ▲최만자(명성여고 체육교사)▲정용숙(명성여중 체육교사)▲김근호(대동상고 체육교사)▲김인준(대동중 체육교사)▲허동욱(사대부고 체육교사)▲김효영(사대부중 체육교사)▲김남태(은석국교교사).

## 韓德政동문

### 알프스 派遣훈련

한국산악회 「알프스」파견 훈련등반대원인 趙德政(68년 운영생물과卒) 동문은 지난달28일 現地로 떠나기앞서 인사차 동국산악회에 들러 회원들의 격려와 환송을 받았다.

이날 嶺東九등국산악회장(국회의원)은 壯途에게 금뱃지를 증정하면서 장도를 격려했다.

## ROTC 제11기入團

### 지난1일、現3학년생

본교 제112 ROTC 제11기(現3학년생)후보생 입단식이 지난1일오전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金東益총장을 비롯、李聖泰 陸軍훈련단장과 학처장등 교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입단식에서 김총장은 『한손에는 총검한손에는 「펜」을 잡아 지리멸렬한 학원분위기를 일소하고 학원의 정상화에 기여해 줄것』을 당부했다.

## 金仁培군선출

### 대학생4-H부회장

농림대 金仁培(농학2)군은 지난달30일 원광대학(이리)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4H연합회」정기총회에서 同會 수석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이날 입단은 교련·학훈단합병제등 일련의 대학군사교육 개정 변복에 따라 11월로 늦여졌는데、2학년은 「정코스」로 종전과같이 3월초에 입단한다.

한편 이번에 입단한 후보생들에 대한 훈련시간보충에 따른 동계방학중 야영훈련은 없을것이라고 관계자는 발표했다.

## 제9회 本社學術賞 입상자 發表

제9회本社學術賞은 個別심사및 綜合審査를거쳐 다음과같이 3개부문에서 총12명의 入賞者가 결정되었읍니다。앞으로도 재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참여를 바랍니다。

### ◇人文社會科學 부문

△本賞=姜成千(國文科 4년) 「槿齋神活의 文學的해석」

△奬勵賞=趙時勝(經濟科 3년) 「通貨不安과 부레튼·우드 體制의 批判」

△努力賞=黃善寬(會行科 4년) 「少年犯罪의 基本的 고찰」

### ◇自然科學 부문

△本賞=金洛新(〃 4년) 「鄭夢周의 回甲宴詩에 나타난 고일선생론」

△奬勵賞=趙世圭(史學科 4년) 「鄭末 義兵抗爭의 성격」

△奬勵賞=해당 작품 없음

### ◇創作文學 부문

△本賞=羅赫埰(國文科 4년) 詩「언제나 나를 제자리 걸음 시키는」

△奬勵賞=李珍玉(國文科 1년) 小說「돌리는風車」

### ◇審査委員

△人文社會과학부문=趙資烋·吳德永·安啓賢·閔丙天·康政哲 교수

△自然科學부문=河璁模·南宣祐 교수

△創作文學부문=徐廷柱 교수·吳學榮(劇作家)

※入賞者시상식은 지난11월2일 오전11시 총장실에서 이미 가졌음。

西紀1970년 11월8일

東大新聞社

## 3개部門 풍성한 수확

## 제9회 本社學術賞 입상자 發表

제9회本社學術賞은 個別심사및 綜合審査를거쳐 다음과같이 3개부문에서 총12명의 入賞者가 결정되었읍니다。앞으로도 재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참여를 바랍니다。

### ◇人文社會科學 부문

△本賞=姜成千(國文科 4년) 「槿齋神活의 文學的해석」

△奬勵賞=趙時勝(經濟科 3년) 「通貨不安과 부레튼·우드 體制의 批判」

△努力賞=黃善寬(會行科 4년) 「少年犯罪의 基本的 고찰」

### ◇自然科學 부문

△本賞=金洛新(〃 4년) 「鄭夢周의 回甲宴詩에 나타난 고일선생론」

△奬勵賞=趙世圭(史學科 4년) 「鄭末 義兵抗爭의 성격」

△奬勵賞=해당 작품 없음

### ◇創作文學 부문

△本賞=羅赫埰(國文科 4년) 詩「언제나 나를 제자리 걸음 시키는」

△奬勵賞=李珍玉(國文科 1년) 小說「돌리는風車」

### ◇審査委員

△人文社會과학부문=趙資烋·吳德永·安啓賢·閔丙天·康政哲 교수

△自然科學부문=河璁模·南宣祐 교수

△創作文學부문=徐廷柱 교수·吳學榮(劇作家)

※入賞者시상식은 지난11월2일 오전11시 총장실에서 이미 가졌음。

西紀1970년 11월8일

東大新聞社

## 朴實用군 최우수賞

### 陸士학술토론회

법정대 朴宰용(정외·4)군은 지난달 29일 육군사관학교 제11회 「화랑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전국대학생 안보체제확립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朴實用군

## 구화중3連勝

### 牙山동우회排球서

충남 아산동우회(회장 朴之濱·농림대졸·본교전임강사역임)는 지난달 31일 제3회 아산군내 직장별배구대회를 개최、본교동문들이 장의 우의단결을 다짐했다.

이날 온양중학교에서 베풀어진 배구대회는 총 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을 벌여 3년연승、우승기를 영구보존케 되였다.

춘우승은 온양중학팀。

한편 69년가을부터 열려오고있는 본교동문들의 「친목체전」에 참석했던 고일선동문(대전공고 교장)이 「체우승기를 기증、본대회의 무궁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주어 동문들의 찬사를 받았다。

## 문동勳範 崔표창 로家書藏 모범

<유현목 동문>

<최범훈 동문>

崔範勳(36·國文학과卒·中東高교사)동문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선정한 71년도 모범장서가로 표창받았다。

少壯 국문학자로 명성이 높은 崔동문은 모두3천7백여권의 장서를 갖고있는데 그중에는 前본교 楣相老총장의 手澤本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최동문의 장서는 주로 「한국여학」「한국문학」「민속학」을 중심으로 전공도서 2천7백여권과 고서적이 1천여권인데 성북구장위동 자택 서재에 아담히 정돈되여 있다고。

## 상수賞督監 문동穆俞 — 서울신문



<유현목 동문>



<최범훈 동문>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갈등인 俞賢穆(국문과卒)동문이 지난19일서 울신문사 「그랑·프리」 갈등상을받았다。

俞동문은 55년 「교차로」란 작품으로 데뷔한이래 「발분」등 43편의 수작을 감독해온 영화계의 양심적인 기수로 한국영화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俞동문은 앞으로 『교육영화를 만든는데 창작기금 50만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차원을개척할수있는 참신한 젊은 감독들이 배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大學人事

▲교수 김병유(前불교대교수)任 대우교수
▲교수 黃善永(前불교대교수)任 대우교수
▲교수채병석(前동대교수)任 대우교수(이상 10월1일자)
▲강사 吳國根任 전임강사 命 교양학부근무
▲신총순任 교수 命 정대학원근무(이상 10월28일자)

## 卒業公演 준비

### 年末에 「興甫歌」

문리대 演劇映畵科 4학년생들의 제9회 졸업공연 「興甫歌」가 오는12월 29일부터 11일까지 「서사학대학원A세미나실에서갖는다。

졸업예정자로 시간은 오후 6시20분부터 9시까지다。

## 近世종교 現世性에"

### 中村元博士 강연회 성황

세계적인 불교학자인「나까무라、하지메」(中村元)박사의 초청강연회가 지난28일 「비교사상연구소」주최로 교양학부 視聽覺교육실에서 성대히 열렸다。

28일 오후2시 많은 학계인사와 불교학도、불교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동양근대사상의 여명」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中村元박사는 英語로 「동양의 불교사상이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에서 다같이 인생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결론을 도출할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天上天下唯我獨尊」은 자아의식의 확인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동양제국은 실로 협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것이 「홈」이라면서 『근대의특징적인 국면은 現世性』이라고 결론지었는데 동역은 徐景洙、비교사상연구소장이 담당했다。

또한 29일과 30일에는 대학원생을 위한 공개강의가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原始불교연구의 문제점」「大乘불교연구의 문제점」등의 주제로 열렸다。

한편 中村元박사는 徐景洙교수의 남대로 3일간의 「잡지의날」기념식에서 제5회 잡지상 유공상을 받았다。

「現代文學」社 主幹을 겸하고 있는 趙演鉉교수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文壇의 代表的인 文學評論家로 활약하면서、文學作品의 활발한 발표를 위하여 「文藝」誌에 이어 「現代文學」을 창간、그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 趙演鉉교수

### 雜誌『유공표창

문리대 趙演鉉(국문과·문학평론가)교수는 지난1일 신문회관 3층에서 열린 「잡지의날」기념식에서 유공상을 받았다。

趙교수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文壇의 代表的인 文學評論家로 활약하면서、文學作品의 활발한 발표를 위하여 「文藝」誌에 이어 「現代文學」을 창간、그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 「곤충生態」등 발표

### 李교수등、各학회서

본교 李海雲교수(農生物학)는 지난달22일 大學院에서 「害蟲防除에 있어 天敵生物을 보호할수있는 生物的防除와함께 총합적 防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그밖에 30일에는 中央大에서 가진 「한국동물생태학회」주최의 연구발표회에 참석、「한국 동굴생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가졌는데、이 발표는 강원도 영월군내에있는 「고씨굴」및 「용담굴」의 생물 조사를 정리한것으로 국내 최초인 「동굴탐험부」의 조사보고였다。

兩日의 연구발표에서 李교수는 「害蟲防除에 있어 天敵生物을 보호할수있는 生物的防除와함께 총합적 防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그밖에 30일에는 中央大에서 가진 「한국동물생태학회」주최의 연구발표회에 참석、「한국 동굴생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가졌는데、이 발표는 강원도 영월군내에있는 「고씨굴」및 「용담굴」의 생물 조사를

## 蔡碧岩이사장 渡日

### 4일 佛教·教育界 視察次



蔡碧岩 동국학원 이사장

일본 불교계및 교육계 視察하기 위해 지난4일 양 오후4시 校內外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김포공항에서 항공기편으로 渡日하였다。

蔡이사장은 지난달 28일 附設비교사상연구소의 초청강연차 내한했다가 귀국길에 오른 中村元(나까무라·하지메)박사와 同行、1개월간 滯日할 예정이다。

滯日중 蔡이사장은 일본 불교계의 현황과 불교종립학교및 大東文化대학등을시찰하면서 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蔡이사장은 본교의 이미지를 널리 심기 위하여 안내책자와 은석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一代記를 그린 「하얀코끼리」란 만화를 산불로 가져가 증단학교와의 유대를 굳히게된다。

그밖에 蔡이사장은 일본 불교계 및 교육계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김포공항에서 항공기편으로 渡日하였다。

## 秋季교직원 바둑대회

### 張四植·李昇熙씨 各組1위

東國棋友會(회장·李昇雨)주최 추계敎職員바둑대회가 지난 24일 총21명의 교직원이 참가한가운데 나누어 「풀리그」전을 벌였는데 3급이상 1급까지의 甲조에서는 9명이 참전、1등에는 張四植(과학관근무)씨가、4급이하의 을조에는 12명의 교직원이 승부를 겨뤄 李昇熙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수상자 명단

▲갑조=1위·張四植(과학관근무) 2위·李秉東(農業化學科) 3위·李昇雨(농대·농경과교수) 3위·李昇熙(농대·농학과교수)

▲을조=1위·李昇熙、2위·金基完(체육과교수)、3위·趙演鉉(문리대·국문과교수)

## 韓德政동문

### 알프스 派遣훈련

한국산악회 「알프스」파견 훈련등반대원인 趙德政(68년 운영생물과卒) 동문은 지난달28일 現地로 떠나기앞서 인사차 동국산악회에 들러 회원들의 격려와 환송을 받았다。

이날 嶺東九등국산악회장(국회의원)은 壯途에게 금뱃지를 증정하면서 장도를 격려했다。

## ROTC 제11기入團

### 지난1일、現3학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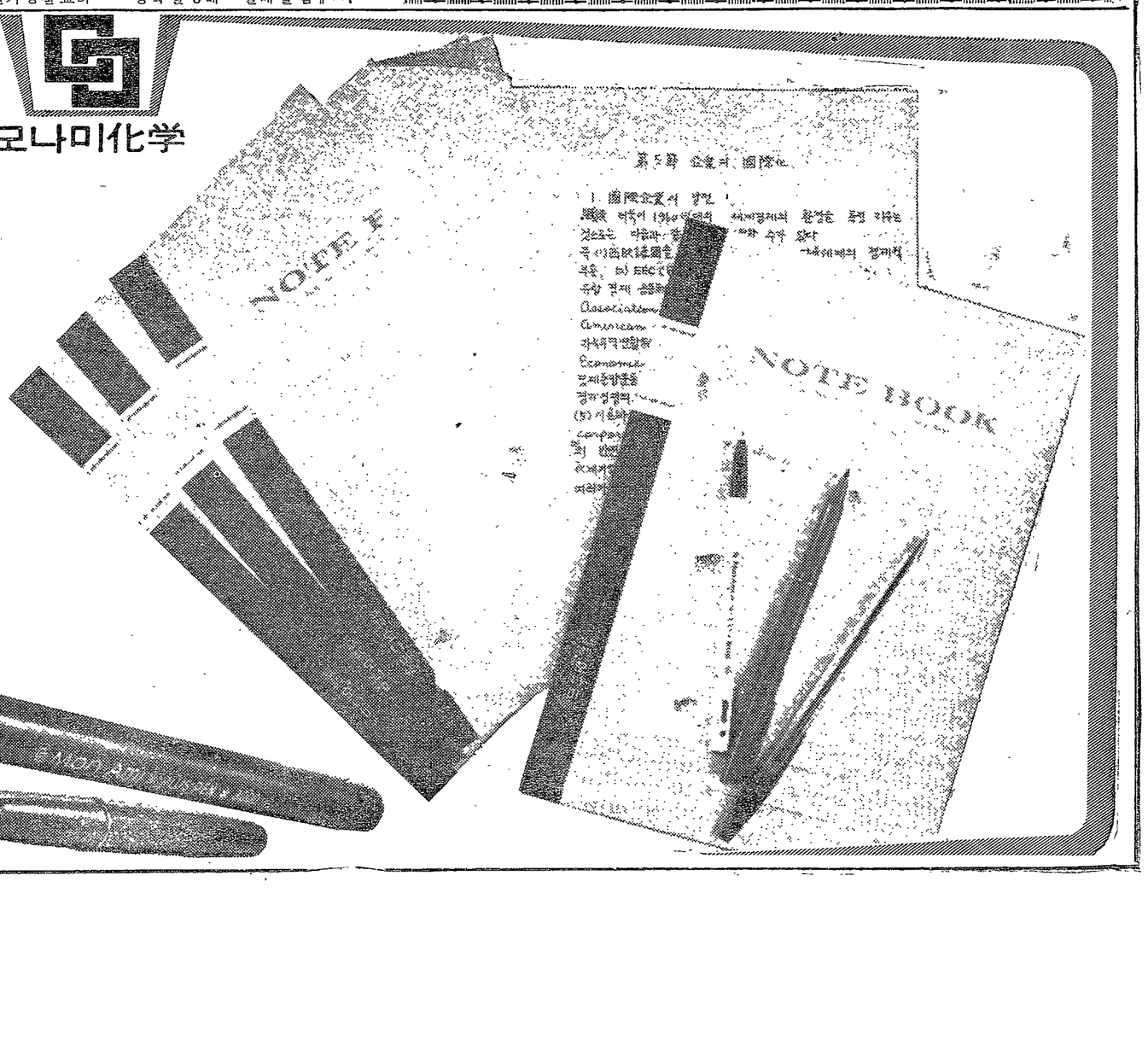
본교 제112 ROTC 제11기(現3학년생)후보생 입단식이 지난1일오전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金東益총장을 비롯、李聖泰 陸軍훈련단장과 학처장등 교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입단식에서 김총장은 『한손에는 총검한손에는 「펜」을 잡아 지리멸렬한 학원분위기를 일소하고 학원의 정상화에 기여해 줄것』을 당부했다。

## 金仁培군선출

### 대학생4-H부회장

농림대 金仁培(농학2)군은 지난달30일 원광대학(이리)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4H연합회」정기총회에서 同會 수석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 教授와 學生간의 對話

## ——指導教授制를 실시함에 있어——

## 社說

뜨거운 진통을 겪은 大學의 캠퍼스에는 다시 학생들이 모여들고, 강의실에서는 낮익은 교수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休校令이 내린 대학이나 얕게된 대학이나를 막론하고, 지난 二週남짓의 한국大學街의 沈默은 참으로 길고 참으로 길은 밤이였다. 이제 그 쓰라린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채 그들은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

다시 학생을 맞이한 대학의 캠퍼스는 조용하다. 平穩은 분명 平穩이지만, 교수나 학생이나 다만 열렬했하고, 몰가질 바를 몰라서 엉거주춤한 자세다. 그간 當局이나 사회에선 敎授와 學生간의 대화의 두절을 크게 문제삼았다. 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이 설로대회를 열리고, 거리로 뛰쳐나갈 때에도 학교의 責任者인 교수들의 입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애썼을 뿐 관상태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간 학원의 동요원인의 하나는 학생들이 교수들의 발언태도에 신뢰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과연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지려할것인가하는 문제는 그러한 학생간의 접촉이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접촉을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수들이 現在 生活상태로는 그러한 많은 시간을 학생을 위하여 바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학생들에게 信念을 이야기 할 단계가 되면, 自信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인듯 싶다. 그러니까 자연學生들을 경원하거나, 요점을 교묘히 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데서 오는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수들에게 학생과의 대화를 강요한다면 교수들은 전과같은 모호한 태도를 취할수는 없을것이고 분명히 자신있는 말을 해주어야 할것이다.

높은 입장에서 그리고 긴 眼目으로 세상을 보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것이가 하는 문제. 역사와 문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 인생을 살아본데서 얻은 지혜, 理性과 感情은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며 나와 남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는가 하는 문제, 善은 무엇이고 惡은 무엇인가, 종교는 왜 필요한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것이 옳게 사는것인가 하는 문제등을 놓고 교수들은 학생들을 그들의 「壁壘」에 초대하여 솔직하고 信念있는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할것이다.

그동안에 교수와 학생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않은 첫째 원인은 우리의 교수들이 現在 生活상태로는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학생을 위하여 바치려고 하는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따라야한다.

그동안에 교수와 학생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않은 첫째 원인은 우리의 교수들이 現在 生活상태로는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학생을 위하여 바치려고 하는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따라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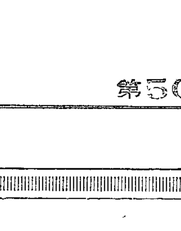
첫째 교수와 학생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않은 첫째 원인은 우리나라

特輯·제9회 本社 學術賞 入賞作品

創作文藝部門 本賞

# 언제나 나를 찾는 「비」 그림자 시리

羅 赫 <文理大 國文學科>



受賞者 프로필

부드러운 갯벌을 오늘도 동안
걷다가 그만 지치고 말아.
놀리듯 지껄이는 두 눈을 이끌니
주위를 맴돌며, 어지러운
머리 위엔 하늘을 좁히면서
솔개가 맴돈다. 언제나 나를
제자리걸음 시키는 빼앗긴 사람아!
—보아라, 사라져 가는 사랑을 보아라—
목숨은 물푸나무서 소리치는데,
나는 나처럼 꾸겨진 세월을 펴 들면서
울음이 나오도록 거의 미쳐 웃는다。
마침내, 사랑에 돌키지 않을 만한 울음만 끌라서
울음에 돌키지 않을 만한 사랑만 끌라서
가만 그 세월에 뿌려 보며는,
햇빛에 돌키지 않을 만하게
겨우 트이는 여무운 눈물빛 속에 돌어 앉아
일렁이는 탱자나무 울타리—。그 울타리
안에서 수탉이 해를 불러 우룡하려 할 즈음에,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
귀신같이 내게서 허파와 심장을 빼 가지고
줄아라 떠난, 아 아 철없는 사람아!
나는 헌 옷처럼 버려진 나를 볼들면서
이번에 옷을이 나오도록 복바쳐 운다。
마침내, 사랑에 돌키지않을 만한 옷을만 끌라서
옷을에 돌키지 않을만한 사랑만 끌라서
다시 그 세월에 뿌려 보며는,
달빛에 돌키지 않을 만하게
겨우 트이는 화안한 눈물빛 속에 돌어 앉아
일렁이는 탱자나무 울타리—。그 울타리
밖에서 별들이 달을 받겨 돌러서려 할 즈음에,」
바람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가꿈은 꽃에게 시샘발을 사람음 되고 싶어
내기해 오련, 그 반짝하는 즐거움은
어디로 갔을까。언제나 나를
제자리 걸음 시키는 빼앗긴 사람아!
—정하라, 사랑을 천연기념물로 정하라—。
이제 못 견뎌 목숨은 꽁꽁제비를 한다。
하지만 마음에 뵈운 경미정은 낡아 버렸고
펴기만 한 세월도 태울 길이 없는데,」
여전히 솔개는 맴돌며 하늘을 좁히면서
한숨처럼 그만 황혼이 내리고 말다。

<文理大 國文學科>

## 1、서 론

단백질의 부족은 대부분의 후진국가에 있어서 식량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새로운 단백질 자원의 발굴을 위해서 녹엽단백질, 미생물단백질, 어류단백질, 조류(藻類) 단백질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백질이라 해서 모두가 식량이 될수는 없는것이다。
단백질 함량이 우수하더라도 섭취, 소화율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콩 단백질의 경우를 보면 영양가가 우수하여 중요한 단백질 원(源)식품으로 오래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콩 단백질의 농축물은 「헥사날」이나 「헥사놀」로 말미암아 범색가 나는 결점이있다。
이 범색는 탈지 처리와 단백질 농축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나 그 일부는 종류 추출등의 처리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이는 범색 성분과 단백질과의 상호 작용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단백질(녹엽단백질, 미생물단백질, 어류단백질등) 에서도 비슷한 예를 볼수 있다。따라서 식용할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을 개발할 적에는 그영양가 이외에 소화율, 범색, 맛등 식품으로서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우리들은 콩 단백질을 농축물을 해함으로서 콩 식품의 질(質)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인자를 제거할수 있을을 알았다。즉 본실험에 의해서 펠신분해가 콩 단백질 농축물로부터 탈지·탈색에 효과적임을 알아낸 것이다。
그러나 효소 분해물중에는 맛이 쓴 펩티드류가 생성된다。이러한 펩티드류를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효소분해 반응의 역반응인 plastein 합성반응을 이용하여 비교적 좋은 수율의 단백질 (약 %) 불질을 얻는데 성공 하였음으로 그 결과를 보고자 한다。

## 2、실험 방법

①시약 및 시료
大豆는 市販되고 있는 것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②방법
(A)탈지 콩 분말의 제조
탈지된 콩 분말은 다음의 방법으로 만들었다。건조된 콩을 마쇄하여 분말로 하고 이분말 (3백g)에 중량의 2배의 아세톤을 가하였다。이것을 3분간 교반하여 「호모제나이즈」하고 1그호모제네이트를 때때로 교반하면서 실온에 5분간 방치하였다。그런 후에 여과하고 그 잔사를 에테르 (2백㎖)로서 3번 추출하였다。에테르 추출액을 버리고 잔사를 감압 건조하여 탈지 분말을 얻었다。
(B)콩 단백질 농축물의 제조。
탈지된 콩 분말(3백g)에 0·5N NaOH (3ℓ)를 가하고 30도에서 1시간 교반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이 추출물을 원심분리기로 분리하여 불용성 잔사를 제거하였다。
(C)펩신 가수분해물의 제조。
콩 단백질 분말 (농축물) (10g)을 물 (1ℓ)에 현탁하고 105도에서 3시간 전처리하여 용성물질의 양(%)과 처음의 펩신 가수분해물 중에 TCA불용성물질의 양(%)과의 차로서 폴라스타인 생성 양을 나타내었다。
(H)폴라스타인 반응에 의한 쓴맛의 탈거 효과。
펩신 가수분해물과 폴라스타인의 쓴맛은 페넬처오우레아 비교법(6)에 의해 측정하였다。펩신 가수분해액(1%농도)을 pH6·0으로 맞추고 여러가지 농도의 0·01~0·0000001%의 페닐처오우레아 수용액과 그쓴맛을 비교조사하였다。한편 폴라스타인 생성용액(20%농도)을 즉석에서 희석하고 그쓴맛을 앞서와 같이 비교 조사하였다。그 결과 펩신 가수분해물과 폴라스타인 생성 용액의 쓴맛을 서로 비교하였다。페닐처오우레아 수용액의 쓴맛의 최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아주쓰다。=0·01%, 쓰다=0·001%, 쓴맛이 약간쓰다=0·0001%, 쓰지않다=0·00001%。

## 3、실험 결과

(1)펩신 가수분해의 탈지·탈색 효과
표1에 콩 농축물이 펩신가수분해로 인한 탈지효과를 표시하였다。펩신가수분해물이 6배 크게 나타났다。
또 콩 단백질 농축물이 펩신가수분해물의 에테르 추출액은 갈색을 띄었고 2백60㎖와 4백㎖에서의 휴광도가 대조구에 비해서 큰값을 보였다。이결과로 펩신가수분해작용은 가수분해물이 탈지와 탈색에 효과적임을 알수 있다。그러나 이 가수분해액은 현저한 쓴맛을 보였다。
(2)폴라스타인 반응의 쓴맛의 탈거효과
콩 단백질의 펩신 분해 용액을 펩신과 incubation 하여 생성된 폴라스타인에는 쓴 맛이 없었다。표Ⅱ에는 폴라스타인 생성율과 쓴맛의 탈거 효과가 적었다。알파-치모트립신이 가장 폴라스타인 생성율이 좋았다。
③고 영양가 단백질 유산물질의 제조
고 영양가이고 소화율이 좋은 섬세한 단백질물으로서 사용할수 있는 폴라스타인 제품을 얻기 위해서 콩 단백질 농축물의 펩신 가수 분해물로 부터 폴라스타인에서 50%에타놀에 불용성인 물질을 제거하여 두었던 단백질 자원도 이용) 이상의 단백질 분해물로 부터 푸라스타인함성을 피한다면 필주아미노산 패턴이 우수하고 소화율으로 우수한 단백식료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 4。고 찰

단백질은 저분자 화합물과 결합할 수 있다。단백질 분자 중의 「하이드로포빅」이란 部位에 지방족 탄화 수소가 결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비슷한 결합 양식이 단백질과 향기 성분과의 사이에도 이루워진다。즉 콩의 냄새 성분 「n-헥사날」과 「n-헥사놀」도 부분적으로 콩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함으로 감압 증류나 「카운터 류런트」 추출법에 의해서는 제거할 수없다。지질 또한 단백질과 결합함을 형성한다。특히 「코스모타이드」(I)고 영양가 단백질 유산물질의 제조。
콩단백질 농축물(10g)을 펩신 가수분해하고 이 가수분해물을 폴라스타인합성하였다。폴라스타인 합성 용액을 50㎖ 정도로 농축하고 냄색을 내는 물질, 에를 들면 아미노산, 올리고펩타이드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50% 에타놀 1000㎖를 가하여 침전시켰다。침전을 동결 건조하여 분말상의 단백질 유산물질을 얻었다。
이물질은 상쾌한 냄새를 풍겼다。

## 3、실험 결과

(1)펩신 가수분해의 탈지·탈색 효과
표1에 콩 농축물이 펩신가수분해로 인한 탈지효과를 표시하였다。펩신가수분해물이 6배 크게 나타났다。
또 콩 단백질 농축물이 펩신가수분해물의 에테르 추출액은 갈색을 띄었고 2백60㎖와 4백㎖에서의 휴광도가 대조구에 비해서 큰값을 보였다。이결과로 펩신가수분해작용은 가수분해물이 탈지와 탈색에 효과적임을 알수 있다。그러나 이 가수분해액은 현저한 쓴맛을 보였다。
(2)폴라스타인 반응의 쓴맛의탈거효과
콩 단백질의 펩신 분해 용액을 펩신과 incubation 하여 생성된 폴라스타인에는 쓴 맛이 없었다。표Ⅱ에는 폴라스타인 생성율과 쓴맛의 탈거 효과가 적었다。알파-치모트립신이 가장 폴라스타인 생성율이 좋았다。
③고 영양가 단백질 유산물질의 제조
고 영양가이고 소화율이 좋은 섬세한 단백질물으로서 사용할수 있는 폴라스타인 제품을 얻기 위해서 콩 단백질 농축물의 펩신 가수 분해물로 부터 폴라스타인에서 50%에타놀에 불용성인 물질을 제거하여 두었던 단백질 자원도 이용) 이상의 단백질 분해물로 부터 푸라스타인함성을 피한다면 필주아미노산 패턴이 우수하고 소화율으로 우수한 단백식료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 4。고 찰

단백질은 저분자 화합물과 결합할 수 있다。단백질 분자 중의 「하이드로포빅」이란 部位에 지방족 탄화 수소가 결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비슷한 결합 양식이 단백질과 향기 성분과의 사이에도 이루워진다。즉 콩의 냄새 성분 「n-헥사날」과 「n-헥사놀」도 부분적으로 콩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함으로 감압 증류나 「카운터 류런트」 추출법에 의해서는 제거할 수없다。지질 또한 단백질과 결합함을 형성한다。특히 「코스모타이드」 원심 분리와 동결 건조에 의해 분리했다。이 물질은 거의 완전하게 냄색가 없고 쓴 맛이 제거되고 또 약간 누른빛을 띠고 있었다。그 수율은 표Ⅲ에 표시 하였다。

## 5、결 론

냄새나 맛이 우리 기호에 맞지않는 단백식품으로부터 펩신에 의한 가수분해 반응과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한 폴라스타인 합성 반응을 통해서 단백질 유사 물질 (폴라스타인)로 된 단백식품을 얻으려고 했다。콩 단백질 농축물을 만들고 이것을 펩신으로 부분가수분해하여 농축물에 함유된 냄새 성분 지방분 색소 물질을 분리하고 에틸로 추출로 제거하였다。그러나 인여전 가수 분해물은 쓴맛을 나타내었다。이 페놀신 가수 분해물을 펩신, 트립신, 알파-치모트립신으로 incubation한 결과 고분자의 단백질 유사물질이 얻어졌고 이는 쓴맛이 거의 없었으며 콩 특유의 냄새도 없고 그리고 쓴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화율도 좋은것으로 기대되는 단백질 유사물질을 높은수율로 얻었다。

表1 Defatting and Decoloring effect of peptic hydrolysis

| Soybean Concentrate | Amount of crude fat (a) and color(b) removed by incubation | |
|---|---|---|
| | with pepsin | without pepsin |
| crude fat g | 0.480 | 0.108 |
| color optical density 200mu | 0.190 | 0.116 |
| 400mu | 0.075 | 0.060 |

註 a) g per 100 protein on dry basis
b)optical density of the Ether solution
c) contorols

表2 Plastin proctivities of various enzymes from peptic hydrolyzafe of soy protein.

| Enzyme | yield(%) of TCA insoluble fraction | Bitterness(a) |
|---|---|---|
| pepsin | 33.0 | 10-5 |
| trypsin | 22.0 | 10-5 |
| a-chymotrysin | 95.0 | 10-6 |
| contol(b) | 20.0 | 10-1 |

註 a) Concentration (%) of aqueous phenylthiourea
b) The hydrolyzate was incubated similary but without enzyme

表3 Productivities of bland Protein-like fraction by various enzymes from Peptic hydrolyzate of soyprotein

| enzyme | yield (%) of bland Procin-like fraction (Plastein)t |
|---|---|
| Pepsin | 31.5 |
| trypsin | 22.5 |
| a-chymotrypin | 94.0 |
| control(a) | 20.0 |

註 a) the hydrolyzate was incubated similary but without enzyme

自然科學분야 本賞

# 콩단백질로 부터 高營養價의 단백食品 제조연구

# 펩신처리, 食用可能性보여

## 脫脂·脫色·악취除去에 重點


自然科學분야
河德模 <文大助手>
南宣祐 <文大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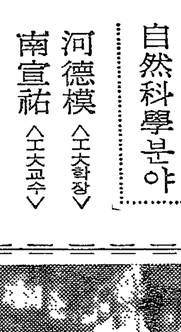

### 共同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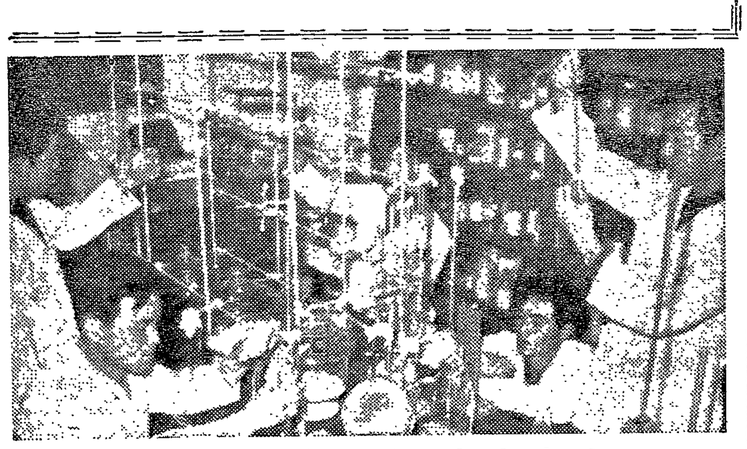
| | | | |
|---|---|---|---|
| 金 忠 會 | <食工科 4년> | 金 洛 培 聖 榮 | <食工科 4년> |
| 金 新 哲 泰 模 | < 〃 3년> | 李 邊 | < 〃 1년> |

### 심사후기

## 自家流맛 健實性 보여

柱廷徐 <文理大 教授> 창안점 논리 높이評價





食生活개선에 정진다짐

### 공동受賞者들

『학장님으로 부터 수상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새삼 지난 여름밤의 실험실 생활이 떠오르는 듯 했다』면서 『그저 기쁠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食品工學徒들。
밤학내내 즉 2개월여를 학년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학과 이른 실험실에서의 결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준다。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의 식량難등에서 식물공학徒로서 당연한 연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한다。
영광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연구를 도와주신 尹주일교수님께 특히 감사한단다。 <사진정명·공동연구> 수상자들이 시험관에 매달려 실험하고 있는 광경。좌로부터 김충희, 이배천, 변영모, 이정태, 김남신군> (끝)


<審查後記>
自然科學분야
河德模 <文大助教授>
南宣祐 <文大教授>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약품

# 胃痛 胃重 胃弱 胃無力

히스우르크는 헐은 胃壁에 새살이 돋게하는 히스치진을 主劑로 胃腸病 治療에 必要한 6種의 成分이 함유되어 있어 우수한 制酸·鎭痛 治療作用으로 胃腸의 기능을 개선하며 胃腸病을 根本的으로 治療하는 위장병전문치료제입니다.
●胃潰瘍 ●胃가다르 ●胃痛 ●胃下垂 ●胃無力症 ●腸內異狀醱酵 ●胃酸過多等

◎ 胃腸病 專門 治療劑
히스우루크 錠劑 / 注射劑 〈포장·가격〉 100錠 250원

三省製藥

# 特輯·제9회 本社 學術賞 入賞作品

## 人文社會科學분야 本賞

### 檀君神話의 文學的 해석

姜成千 〈文理大 國文學科〉

▲사진·檀君의 傳說을 그린 中國山東省의 畵石標（기원전206~기원200년간）

### 一군 千成姜,入賞수상자 賞本一

## ——受賞者「五」로·····」

本賞조각을 『경쟁에서 이긴 기분』이라고 약간 차분하게 말하는 姜군. 잉혁가는 신화에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불러 일으켜주는 계기에서 시작하여 응모한 작품은 이번 학기초에 정리한 셈이라고. 국어국문학회장을 역임한바있는데 재작품은 문학을 창조할 수있는 정신적 바탕이되어야한다고 다대한 작품을 남겨 줄것같다.

『문학은 문화의 창조』

문학을 창조할 수있는 정신적 바탕이되어야한다고 역설하는 姜군. 그렇부부를 하다 본 결과의 작문. 그렇부부를 수업 한것은 고 3때 부터라니 그럼에도 재질을 지니고 있는 재주꾼이기도 하다.

주변의 하루가 두었가 쓰게끔 만들었다는 동기였는 말하는 강군의 이면 까마귀 울음소리를 내고 싶은 욕망이 남다는 것인데 계속 정진을 부탁해 본다라고 웃음삼아 던진말에 고개를 끄떡이며 「도서관을비롯한 주위환경이 좀더 연구하기에 좋은 시설을 갖춰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지한 바탕이 되어야한다고 역설하는 姜군.

이번의 작품만이 아니라 교내신문 등에도 좋은 작품을 발표해 장래가 촉망되는 문학도이지만 국문과에는 뜨겁지 않은 인물.

### 賞祖없더니…『그저 熱心히 뛰겠다』
### 演劇狂에 그림도 그리는 多才多能型

『문학의 창조』에 관한 이번 수상의 소감은 어떠한가.

『글쎄요. 우리 文理에서는 「세계문학을 向한 한국문학」, 「세文學風土」 또는 「民族文學」에 관하여 五云論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서로 하나의 根本에 歸結된다. 文學風土 개선이 없이는 올바른 민족문학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민족문학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서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향하여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문학에 있어서의 한국문학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표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古典舞踊의 공연이 西歐에서 많은 갈채를 받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냥 한국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西歐人들은 한국문학에 깊은 이해를 보내지는 않는다. 문학적 형식과 정을 설명하면서 얼마간 언급이 되었으리라 믿으나 좀더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古代人은 象徵, 우화 또는 隱喩로서 사고한다. 인간의 정신이 단지 外界事物을 수동적으로서만 받아드리는 거울이 아니라, 認識對象의 현실을 형상으로써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들 상징과 우화 또는 隱喩로서 사고한

# 国際経済の多元化の官的転換の必要

## 通貨調整の実効確保の立場から

経済学博士　安藤良雄

## 1、問題の所在

## 2、通貨調整の実効確保の立場から

## 3、国際経済の多元化の官的転換の必要

## 4、結論

安藤良雄　正今

吳德永　正今

〈論文要約〉

人文社會学部

安藤良雄　吳德永

本稿は、国際経済の多元化の官的転換の必要を、通貨調整の実効確保の立場から論じたものである。

まず、問題の所在として、ドル危機の発生以来、国際通貨制度の改革をめぐる論議が活発化してきたが、その論議の焦点は、ドルの過剰流動性の問題と、国際収支の調整の問題とに集中してきたことを指摘する。

つぎに、通貨調整の実効確保の立場から、国際収支の調整の問題を検討する。

国際収支の調整の問題は、国際通貨制度の改革をめぐる論議の焦点の一つであるが、その論議

特輯: 제9회 本社 學術賞 入賞作品

# 北韓의 教育實態

李 意 炯 〈法政大 政外科〉

## 가、연구範圍

本論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목적을 두었다。

첫째 北韓의 教育과정을 연구하므로서 北韓의 젊은 世代를 이해하고 이기는데 도움을 얻고자 함이며

둘째 북한의 教育目標를 파악하므로서 남한의 교육과 실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이다。

셋째 大學교육의 南北韓 차이를 안다。

넷째 教育을 정치의 부속물로 일관하는 北韓에서 정책적인 자료를 제시하므로써 政治學徒로서 南韓의 구조와 실정을 비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섯째 中心이 되고있는 「이데올로기」 教育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비교하려 한다。

여섯째 北韓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나、教育政策과 制度변천

개인의 개성과 감정을 외면하고 소위 그들이 公言하는 「共産主義的 人間形式」에 근본이념을 두고 있다。그것은 共産黨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세계관과 知的 육체적 능력을 소유한 者를 양성하는데 있다。

결국 共産治下의 교육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다각도로 이용가치가있는 한가지 이상의 전문지식과 기술, 또는 기능을 소유한 者만이 요구하는 唯物史觀을 튼튼히 定立하려는 것이다。곧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봉사되고 희생시킬수 있다는 뜻이다。北韓의 젊은 世代들에 있어서는 직접 불행한 일이지만 공산당의 입장으로 볼때는 다른부분에 비하여 학교교육 만큼은 소련및 東歐공산국가들보다도 철저하게 공산당 위주의 교육을 강요하고있는 셈이니 성공한 편이라 할수 있겠다。

이근거로 북한 젊은이들이 대부분 표면상으론 공산당에 맹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한에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정신상태하에서도 큰 반발없이 참고 견디고있는 사실이 쉽게 납득해 준다。

## 다、北韓大學의 現況

A、北韓의 大學生活

南韓의 교육방침이 「종합的」인 방법으로 問答式이라면 北韓의 방침은 철저하게 「劃一的」「注入式」이라하겠다。우선 後代를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일성의 가르침에 충실하도록 교육하는것이 정책목표의 핵심을 이루고있다。그이유는 김일성권력을 위협하는 잠재적세력이 있는 말끔 김일성에대한 맹종정신을 後代에 배양하여 反김일성 요소를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해방전 중요한 교육시설들은 南韓에 편재되어 있었고 북한의 소수教育기관은 6·25사변으로 거의 파괴되었다。

1945년11월19일 行政10局에 교육국을 신설함을 기초로 본격적인 대책이 강구되었고 1966년11월 소위 「最高人民會議」에서 「國家의 숙련된 노동력 教育」을 목적으로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등 제도 자체가 기술교육의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1968년4월1일 현재98개대학에서 15만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98개 대학중 종합대학으로는 金日成大學뿐이다。나머지97개는 우리나라의 單科大學 규모로 유지되는 학교가 43개교, 낮에는 工場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工場에 부설된 학교에서 몇시간씩 공부하는 이른바 工場大學이 36개교로 분산 형성되어 있다。

인문계3, 기술계7의 비율로 大學生 性別구성은 師範大學이 남녀 비율 5대5, 教育大學 2대8、인문계大學 6대4、기술계대학7대3의 비율을 이루고 있어서 다른과 같은 점에 비하여 기술계 학생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1956년 「학가리」 폭동사건당시, 유학생중 右傾으로 전향하는자가 속출하자 東獨으로 보내는 학생 2명이 西獨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962년까지 학생 전원을 송환조치하는 강경책을 발휘한 예가 있었다。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東歐에서 불기시작한 自由化의 영향이 아니고 北韓학생을 에게 잠재되어있는 自由民主主義 등 경신의 발로임을 알수있다。1966년도 현재 북한은 소련에 工學部 學생 유학생을 5천명 파견(1)한데 비해 南韓은 1953~1967年 2월말 현재 전분야에 걸쳐 6천8백45명(2)이 유학하고 돌아왔다。①북한요람, 68(공보부刊) 1789 ②해외유학생 실태조사(68년문교부刊) 4P)

## 라、結 論

인간을 개발하여 올바른 구현하려는 南韓의 「二向式教育」에 비하여 해방후 26년간 북한의 교육은 「二向式教育」으로 획일적인 방법을 고수하여왔다。

相反된 교육체제는 상호작의 거리만 더욱 넓혀주었고 그 결과는 가치관의 차이로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부쟁의 계속만이 남게 될것이다。

통일의 측면에서도 北韓의 현행제도처럼 學校라는 교육기관을 「붉은戰士」를 만들어 내는곳으로 일관하고 있는限 젊은 世代들이 형성하는 세계관에 결정적인 阻害요소를 잔뜩 하게하는 결과밖에 안된다。이러한 모순적 주行爲으로 오늘날 같은 민족이며 하나의 국토 아래서 우리는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북한을 느끼며 살아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좀더 實現性있는 통일에대한 代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일반학생들에게 共産主義 연구에 제지를 加했던 「터부」를 씻고 수동적인 방공교육이 능동적인 승공의 길로 바뀌어질때 강압적으로 教育받은 北韓학생들을 놀은 次元에서 언젠든지 이겨주는 것이다。

# 人文社會科學分野 —努力賞

제9회로 접어든 본사 학술상에 예년에 비해 많은 응모작품으로 풍성한 거두어졌다。금년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분상 장려상 외에 노력상을 신설하는등 우수한 논문이 많았음은 특기할만한 일이다。본란에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노력상을 수상한 학술논문 3편을 싣는다。지면관계로 70여매의 원고를 20여매로 줄여내지는 발췌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편집자>

# 「劃一的」「주입식」교육

## 고등학교 教育事情 무시 人間

### 緒 言

개별민족이 수행하는 역사추진 에너지를 이룸하여 우리는 민족운동이라 한다。이러한 민족운동은 대부분의 경우 한민족사의 거록한 대의를 수반한다。그것은 민족운동이 해결하려는 역사모순의 대부분은 이민족이 밖에서부터 던지려는 타율적인 불평등이기 때문이다。이같이 이민족이 있으키는 부당한 민족모순에 저항하는 것은 순박하고도 의롭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로운 민족운동도 그것이 갖추해야하는 상황은 언제나 절박한 역사적 현실로 연결된다。그것은 그 운동이 저항하려는 민족적 모순이 극복되지 않을때에는 민족운동은 역사의 흥용한 창조력을 개별민족에게 附與해주는 역할을 한다。

菱氏이란 民軍이란 말이니 국가가 위급할때 정부의 명령이나 자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抜筆孰劾하여 祖國守護에 蹶起한 知識階級主導의 對外抗爭部隊를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부대명령을 비록 각자 향토의 농민 壯年을 동원하여 편성하더라도 그의 지휘관이나 참모부관은 在野의 양반출신이나 儒林、승려같은 지식층 인물이 이를 담당하여 오로지 국토방위와 주권수호에 목숨을 걸고 총성을 대담으로 目伽가 의병이라 일컬은 것이요, 國內的인 반란이나 儒治투쟁에 가담한 부대에게 菱氏이라 일컬은 것은 그다지 없었기때문이다。이점에 대해서 봉건사회 구조의 불가피한 소치로 돌려 보호 교정해야 할것이다。

## 韓末義兵抗爭의 성격

金 世 圭 〈文理大 史學科〉

### 結 語

의병항쟁과 일본의 討伐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의병항쟁을 단순히 보수적인 양반인민의 虐殺로서 민족의 역량을 격려하며 의리로서 동지를 규합하여 용전불부하였으니 菱氏의 활약이야 말로 민족의 비단도적 지배를 甘心服從함을 면하지못하였을 것이다。무릇, 우리나라의 菱氏抗爭이라 할 수있는것은 「위정소」 교수가 이미 해설한 바와 같이 丙寅洋擾와 辛未洋擾에 이어 일어난 의병항쟁을 말하여 6차에 걸쳐 대규모적인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제1기는 1895년 乙未事變후 일어났던 菱氏抗爭을 제1기로, 乙巳保護條約에서 軍隊解散後까지를 第2기로, 한일합병이후 1913년까지를 제3기로 구분하여 논하기로 한다。

### 一、第一期 (1896~1905)

甲午農民擧爭을 진압하고 淸日戰爭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독점적인 지배권을 수립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악랄하게 강행함과 아울러 馬關條約에서 얻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면서 부대로서 외적을 驅逐하며 國權回復을 전개하자는 구호아래 과감한 항전을 전개하였으며 또 이들은 구식대포 75문까지 소유하여 당시의 지방경찰정도로는 상대도 되지 않았다。그리하여 光武 10년 5월에는 日軍 3개중대와 기병 1개소대가 기관포로 무장하고 출동하여 洪州城을 중심으로 만3일간의 격전을 치른후에야 洪州城을 탈환하였다。

### 四、第三期 (1910~1913)

1910년 일본천황명의 조선정부총감에 明石元二郎은 寺內統監과 密謀하고 8월17일에는 내부대신 박제순 度支部大臣 高永喜 農商工部大臣 趙重應등을 脅迫하여 8월29일에는 어전회의를 열어 오후3시에 합병안을 결정하고 오후5시에는 태조 조인을 끝내고 말았으나 조선은 전국으로 부터 27년 5백19년 만에 나라를 잃고 잔악한 日帝의 식민지로 化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의병이 없어졌으므로 1911년에는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집중배치에서 또는 分遣所를 두어 경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의병항쟁을 屈折시키려고 하였다。

의병항쟁에 동원된 수천명의 의병장과 수만명의 의병의 희생은 극히 한정된 소수이며 아직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실이 返掘되어 있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 三、第二期 (1905~1910)

노일전쟁의 결과 1905년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仲裁로 포오츠마스조약을 체결한뒤 일·미양국은 일본의 한국에 있어서의 權益과 미국의 비율빈에 있어서의 권익을 승인하였다。이에 일본은 독점적인 식민지화의 야욕을 채울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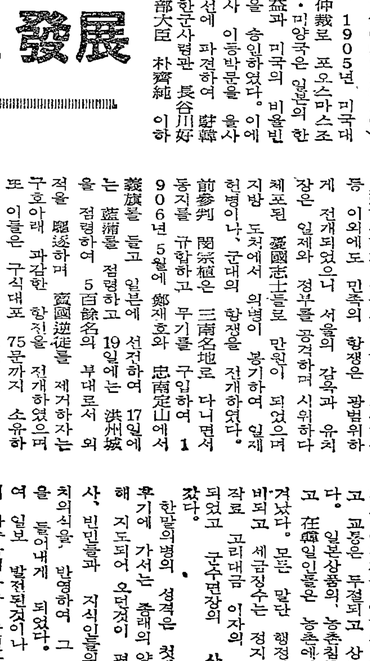
한말의 의병의 성격은 첫째 의병운동의 후기에 가서는 종래의 양반, 儒生에 의한 義兵이 되어 오던것이 평민 즉 농민병사, 빈민들과 지식인들의 민중적 의식의 발로, 발명하여 그 내용적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초기에 비하여 일보 발전된것이나 진정한 의미의 자주독립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도 한국의 지도층은 무사상의 오랜 굴레속에 얽매여 왔으므로 새로운 의병의 형성에는 미숙했고 여기에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侵略이 강요되었기때문에 항쟁은 儀敷的인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그들의 항쟁방식은 소극적이고 부정적 이였다。민족의 주체의식각성에 따른 적극적 자각한 운동이 되지못했기때문에 치밀한 계획아래 대처한 일제에 항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고 의병장들과 의병들과의 계급적 한계에서 오는 단합하나 호응이 적었던점을 지적할 수있다。

셋째로 그들이 상용한 무기의 열악과 훈련부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식무기로 장비한 일본군과 경찰 헌병을 상대하기엔 너무나 미약했었고 수많은 브별작전과 密偵 韓人特設巡査隊등의 암약등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 民族運動은 순박, 義로워

## 대중적 性格으로 發展




本報廣告下命은 (22) 8498

□海外留学□
Guide to PASSPORT
文教部유학, 美大使館비자, TOEFL, GRE 等의 試驗문제 및 留学수속節次 解說書. 해답과 새問題실은 別冊부록 끼어 ₩1,400.
TOEFL 500
최근 TOEFL문제中 2回 이상 出題된 문제를 간추려 해답과 함께 수록. ₩420.
우편注文은 서울光化門사서함 57호에 접記로 할것.
한일출판사 알림
大学구내書店과 有名 서점에서 販売中!

## 一、少年犯罪의 추세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추세를 보면 1961년 소년범죄 검거수는 총1만8천9십7명이던것이 계속 증가하여 65년에 4만4천2백2십3명으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66년에는 3만3천9백5십8명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듯 하였으나 68년에 3만5천9백5십4명, 69년에는 3만6천6백48명으로 전년에 비해 6백9십4명이나 증가하였으나 成少年對比로보면(表1) 65년에 총범죄자 3십5만6천5백10명중 소년범죄가 4만4천2백2십3명으로 12%를 차지하던것이 점차 감소되어 69년에는 총범죄수가 3십9만2천7백3십6명으로 65년에 비해 4만이나 증가하였으나 성인범죄가 3십5만6천6백4십8명으로 90.7%를 차지하고 소년범은 불과 9.3%에 해당하는 3만6천6백4십8명으로 매우 감소되었다。

여기에서 소년범을 소년연구 10만명당의 인구비율에 비추어 보면 65년에 1천2백9십7명이던것이 66년에 1천백2십2명 67년엔 1천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 68년에 1천6십8명, 69년에는 1천7십5명으로증가되는 추세이다。

### 2、少年犯罪의 傾向 (特徵)

최근에 있어서의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는 증가현상이나 65년이후 소년인구 10만명당의 對比를 보면 절차 감소되는 경향이며 질적으로는 그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것이다。소년범죄의 절저한 문제시되고 있는것이다。

### 3、少年犯罪와 警察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을 가지고 임하는 사실은 최근에 있어서 소년의 신체적 가속현상이나 무기 또는 유기의 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그 동기와 罪質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정하여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관정포준을 정하고 있는것이다。

「소년범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Juv.P.K.ome)에 의하면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의 책임에 관하여 ①소년의 반사회적 조정 ②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반사회적행동의 원인이 되는 조건에 대한 예방활동 ③범인이 된 소년에 대한 예방의 그 대방법을 지적하였다。본안은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위의 그 대방법을 고찰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해 보기로 한다。

(1) 소년의 반사회적행동과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반사회적행동

소년에 대한 조정。반사회적인 행동이란 범죄로 인하여 성인의 단순 범행에 비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집단형성의 원인은 가정조건의 결함으로 인한 강도등 다양하다。

(2) 소년범죄의 集團化

소년범죄의 집단화 경향은 소년기가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을 요구하고 집단에 가입하는 시기라는 점에 비추어 문제시되는 것이다。이것은 거의가 신체적 정신적 미숙으로 인하여 성인의 단순 범행에 비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집단형성의 원인은 가정조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년이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가입하는 것이다。이것은 거의 소년의 심신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것으로 보인다。또한 소년의 주변에 있어서 범죄적인 힘이 약해지고 있는것이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少年犯罪의 都市集中化

이 현상은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영향을 받고있다。즉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은 범죄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도시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범행을 유발케할 기회가 많기때문에 소년범죄가 도시에 집중되고있는것이다。69년도 소년범죄총수 3만6천6백48명의 약70%이상이 서울 부산을 비롯한 인구 5만이상의 군소도시에서 발생하였다。이것을 다시 보면 서울이 30%, 부산이 12%, 대구가 9%의 순위이며 5만이상 도시이외의 발생수는 9천9백99명에 해당하는 14%로 23·8%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7·1%가 감소하였으며 즉결심판회부는 2만3천5백9십2명으로 17·7%로년에 비해 6·4%가 감소한 현상이다。이에 반하여 보호사건은 1만7천6백7십6명으로 14·7%를 차지해 전년에 비해 3·1%가 증가하였다。

### 4、結 語

지금으로부터 11년전인 1960년에 한국정부와 「USOM」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청소년 비행을 조사한바있는 「바나드·코간」씨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 (한국소년비행문제) 의 분석가운데 추측한 현존한 문제의 대부분이 제거되고 변천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소년들에게 긴장 과로가 증가되고 보호 교정비스가 지금같이 부족한 한 앞으로 10년내에 비행문제가 격증하리라고 예언한 그의 예언을 돌이켜 생각해 볼때 우리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던가를 깨저리게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경찰은 소년의 범죄예방과 복지를 위하여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소년범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Juv.P.K.ome)에 의하면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의 책임에 관하여 ①소년의 반사회적 조정 ②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반사회적행동의 원인이 되는 조건에 대한 예방활동 ③범인이 된 소년에 대한 예방의 그 대방법을 지적하였다。본안은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위의 그 대방법을 고찰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해 보기로 한다。

(1) 소년의 반사회적행동과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반사회적행동

소년에 대한 조정。반사회적인 행동이란 범죄로 인하여 성인의 단순 범행에 비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집단형성의 원인은 가정조건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년이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가입하는 것이다。이것은 거의가 신체적 정신적 미숙으

# 眼手術과 休講의 辯

醫學部 教授 大科工 모덕하

太平洋戰爭이 일어나던 다음해 1942년 初부터 디딘 교단 생활이 었으니까 오늘까지 약 3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이다。 光復을 맞이하기 5~6개월사이의 공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外遊도 이렇다할 外遊도 없었던 단순하고도 평탄한 생활을 보냈다。 나는 교단위에서 나는 이 교단에서 에 맞지않는 한마디로 格리의 수술의 결과가 여의치 않아 왼쪽눈의 視力을 잃은채 일년반 동안을 피나는 노력으로 교단을 지켜왔다。 이번에도 짧은 가을學期를 어떻게 넘기고 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再手術로 들어갈 것을 은근히 바라고 또 빌었건만 하늘은 이 가냘픈 소원을 들어주려 하지않았다。 이번의 두 눈의 백내장수술 결과는 좋은편이나 예기치 않았던 또 하나의 다른 증상으로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바른쪽의 視力이 제구실을 다 하지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마지막 한번의 망막 박리가 염려되었다。 2~3개월의 絕對安定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렸다。 이리하여 나는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말았다。 거의 30년에 걸친 긴 休暇없는 교단생활을 잠시나마 쉬지않으면 아니되었고 학생들을 위하여한 시라도 빨리 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70年代는 생애의 最盛의 시대를 기록하였다。 지나치리만큼 평탄 무사하던 50평생에 처음맞는 악조건이 연거퍼 휘몰아쳐 나를 지금 窮落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한다。 나는 이 순간부터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인생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한다。 이 窮落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救出하는 길은 오직 한 「싸이클」에 고정시켜놓고 밟는 귀를 기울이는것이 고작이었는데 수술이후로 나는 영원한 생활 「코스」를 달리게 되었다。 이 50代의 노교수는 「라디오」 학교의 신입생이 되었고 새삼스럽게 전과의 세계를 통한 세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싶은 욕망에 불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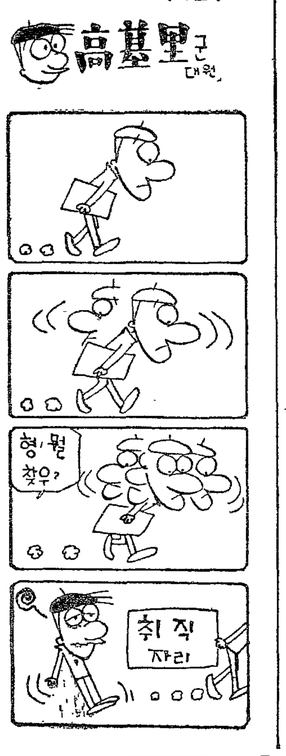
서중정 교명에를 珠(제대 택요인 종수상세 姜씨자)는 온바지력 시마 에게 보내재주의 바라는 바이다。 <편집자>

지난백으 8월내로 9월10일 본사로 적 정교수의 관계로 밝히며 회복되기를 지면관계로 일부 삭제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나는 이렇게 믿어 나갈때 나에게는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생애의 再出發의 능성이 부여되지만 이를 뒷받침이 운명으로 돌린다 해서 무슨 의지 양상 느낀다。 나는 이 무 자연의 악조건에 대하여 과감한 도전을 전개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며 再生에의 길이라고 믿는다。 最後의 순간까지 싸우고 또 싸우는 것만이 있을 뿐이라고 다짐해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엇보다도 마음의 패배가 더 무서운 악조건이 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첫째 生活醫의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現代科學과 醫學技術의 승리를 신뢰하는것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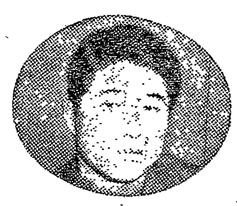
〈62〉




# 特輯·제9회 本社 學術賞 入賞作品

## 審査後記

榮學 吳



## 資料 한 확명 ,定設「테마」를

韓國文學은 최근 技的발전과 思想的 退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점에서 대학의 文學활동은 내일의 한국문학에 비전을 제공하는데 있어 기대를 갖는다. 또 既成文壇이 침체되어 있을때는 活路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學術賞에 응모한 학생작품(小說, 戲曲) 은 적잖은 실망을 갖게 하였다. 첫째 이작품속에는 사상적寒志는 고사하고 기교적발전도 찾아 볼수 없을은 물론 쓰레기통을 초토러놓았을 정도였다. 나는 여편때는 문학에 대한 종오심이 없기도 하고 또 이에 관한 애착심이 별로 없었던 탓이겠지만 작품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부끄러운 생각이 앞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에서 기대하는 새 韓國文學을 마련하자는 것이 학생들의 책임일까. 학생들의 작품에서 기대하는 새로운 思想性의 추구와 기성의 낡은 습성을 찌르는 참신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번 응모작을 아무리 열심히 精讀하여도 이것도 저것도 취할것이 없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물리는 風車」, 「어떤狀況」, 「어둠속에서」, 그리고 戲曲 「에덴의 추억」을 미워하지말라」 등이 발견된것은 퍽 다행이라 생각한다. 「어떤 상황」은 광복의 素材로 걷할하고 文章修練이 필요하며 「에덴…」은 主題의 觀念性이 내용에서 여과되어야하겠고, 그런대로 문장이 깔끔하고 소설적 소재를 선택한 것은 「물리는 풍차」라고 본다. 테마를 천착한다면 기대해 볼만 하다.

〈小說家·同門〉

## 創作文學분야 장려상

# 風車 물리는

李珍玉 〈文理大 國文學科〉

나무 관장은 습기가 차서푸르스름한 버섯으로 덮여있었다. 우리부부는 이집을 힐끔이지않고 천게 연였다는 것을 행운으로 돌리었다. 맛벌이를 하는 우리는 집을 래일 식모에게만 맡기고 집을 비운다는것을 불안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안채를 세를 놓고 뒷채를 추인이 사용하겠다는 이집을 소개받고 우리는 계약을 서둘러서 끝내었다. 내생을 별토 하지 않는 그이였지만, 9년간에 좁은 아파트를 벗어난 흙가본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주인내외는 어린 계집애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주인남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태도가 분명하지 못했고, 좀 허풍스러운 남자인 것 같았다.

이사한지 며칠이 지났을때이었다. 간 원피스를 입은 어린 계집애가 하수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은 것을 보았다. 계집애는 한번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하수도가 막혀 내려가지 못한 물이 형건히 고여있는 곳에 손을 넣고 있었다. 구정물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한참동안을 아이는 그것을 계속하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도 진지해서 마을이, 용기를 잃어갔다.

「얘, 그건 더러운 것이잖니, 그런걸 먹는 것은 매맞을 짓이야」

거의 날카롭다 싶을 정도로 나는 아이에게 미운 불길을 보내고 있었다. 별안간 나타난 나를 보고도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화를 내는 내 얼굴을 보고 씩익 웃고있었다. 별일 아니라는듯 「아줌마, 나 아무것도 않했어요. 버티는것이 아까웠어요」

하더니 천천히 일어서서 너부도 태연하게 맹물에 손을 씻었다. 조그만 나의 불결을 막아낼 수있는 그런 깜찍할을 지니고 있었다. 이 아이와 친숙해 진다는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 같았다.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낭아야하는 그런 여인의 아픔을 겪지못할것 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나였다. 이집에 이사를 와서 아이를 처음 대했을때부터 나는 어떤 두려움을 지니게 되었다. 어쩌다 뒷채에서 아이의 말소리가 들려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바보스런 나를 발견할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퇴근무 집에 돌아서서 문득 아이를 발견하면 아이는 늘 후미진 곳이나 더러운 곳에 있을때가 대부분 이였다. 아이가 춧어먹는 버릇은 습관화 되어있었다. 입에 넣을 수만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입안에 넣고야 마는 성질이었다. 국민학교 선생인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계집애가 늘밖에 나와 놀고 있는것이 걱정이 되어 여러번 부모에게 주의를 시켰지만 계집애는 여전히 아이들과 섞여 놀고 있었다. 한동안 할말을 잃고는 하니 않아 있었다. 낮에 계집애가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은 결코 자기네들 때문은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갔지만 영아원에서까지 그런 버릇이 있을까? 나는 눈만 뜨면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무슨 이유로 핸일로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비밀에 관심을 보이는지 가신도 모르겠다. 알파하게 알고있는 아동심리등을 억지로 들추어내기도 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이는 점점 다른일은 무관심, 더 더욱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무슨 이유로 핸일로 내가 그들에게 그 어린 계집애에 관한 비밀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가신도 모르겠다. 알파하게 알고있는 아동심리등을 억지로 들추어내기도 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이는 점점 다른일은 무관심, 더 더욱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무슨 이유로 핸일로 내가 그들에게 그 어린 계집애에 관한 비밀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가신도 모르겠다. 알파하게 알고있는 아동심리등을 억지로 들추어내기도 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이는 점점 다른일은 무관심, 더 더욱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구데기가 득실거리는 부패한 음식도 아니고 입으로 갖져갔다. 강아지 밥 그릇을 핥고있는 계집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섭찍한 음식도 구속되어 있기를 싫어하는 계집애에로서는 견딜수 없는 한나절이었을것이었다. 창문을 때어내고 창문 밖으로 나는 여편때는 운동에 소홀이 없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종오심이 없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었던 탓이겠지만 작품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부끄러운 생각이 앞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에서 기대하는 새로운 思想性의 추구와 기성의 낡은 습성을 찌르는 참신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번 응모작을 아무리 열심히 精讀하여도 이것도 저것도 취할것이 없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물리는 風車」, 「어떤狀況」, 「어둠속에서」, 그리고 戲曲 「에덴의 추억」을 미워하지말라」 등이 발견된것은 퍽 다행이라 생각한다. 「어떤 상황」은 광복의 素材로 걷할하고 文章修練이 필요하며 「에덴…」은 主題의 觀念性이 내용에서 여과되어야하겠고, 그런대로 문장이 깔끔하고 소설적 소재를 선택한 것은 「물리는 풍차」라고 본다. 테마를 천착한다면 기대해 볼만 하다.

〈小說家·同門〉

나무 관장은 습기가 차서푸르스름한 버섯으로 덮여있었다. 우리부부는 이집을 힐끔이지않고 천게 연였다는 것을 행운으로 돌리었다. 맛벌이를 하는 우리는 집을 래일 식모에게만 맡기고 집을 비운다는것을 불안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안채를 세를 놓고 뒷채를 추인이 사용하겠다는 이집을 소개받고 우리는 계약을 서둘러서 끝내었다. 내생을 별토 하지 않는 그이였지만, 9년간에 좁은 아파트를 벗어난 흙가본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주인내외는 어린 계집애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주인남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태도가 분명하지 못했고, 좀 허풍스러운 남자인 것 같았다.

이사한지 며칠이 지났을때이었다. 간 원피스를 입은 어린 계집애가 하수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은 것을 보았다. 계집애는 한번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하수도가 막혀 내려가지 못한 물이 형건히 고여있는 곳에 손을 넣고 있었다. 구정물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한참동안을 아이는 그것을 계속하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도 진지해서 마을이, 용기를 잃어갔다.

「얘, 그건 더러운 것이잖니, 그런걸 먹는 것은 매맞을 짓이야」

거의 날카롭다 싶을 정도로 나는 아이에게 미운 불길을 보내고 있었다. 별안간 나타난 나를 보고도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화를 내는 내 얼굴을 보고 씩익 웃고있었다. 별일 아니라는듯 「아줌마, 나 아무것도 않했어요. 버티는것이 아까웠어요」

하더니 천천히 일어서서 너부도 태연하게 맹물에 손을 씻었다. 조그만 나의 불결을 막아낼 수있는 그런 깜찍할을 지니고 있었다. 이 아이와 친숙해 진다는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 같았다.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낭아야하는 그런 여인의 아픔을 겪지못할것 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나였다. 이집에 이사를 와서 아이를 처음 대했을때부터 나는 어떤 두려움을 지니게 되었다. 어쩌다 뒷채에서 아이의 말소리가 들려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바보스런 나를 발견할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퇴근무 집에 돌아서서 문득 아이를 발견하면 아이는 늘 후미진 곳이나 더러운 곳에 있을때가 대부분 이였다. 아이가 춧어먹는 버릇은 습관화 되어있었다. 입에 넣을 수만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입안에 넣고야 마는 성질이었다. 국민학교 선생인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계집애가 늘밖에 나와 놀고 있는것이 걱정이 되어 여러번 부모에게 주의를 시켰지만 계집애는 여전히 아이들과 섞여 놀고 있었다. 한동안 할말을 잃고는 하니 않아 있었다. 낮에 계집애가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은 결코 자기네들 때문은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갔지만 영아원에서까지 그런 버릇이 있을까? 나는 눈만 뜨면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무슨 이유로 핸일로 내가 그들에게 그 어린 계집애에 관한 비밀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가신도 모르겠다. 알파하게 알고있는 아동심리등을 억지로 들추어내기도 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이는 점점 다른일은 무관심, 더 더욱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무슨 이유로 핸일로 내가 그들에게 그 어린 계집애에 관한 비밀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가신도 모르겠다. 알파하게 알고있는 아동심리등을 억지로 들추어내기도 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이는 점점 다른일은 무관심, 더 더욱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구데기가 득실거리는 부패한 음식도 아니고 입으로 갖져갔다. 강아지 밥 그릇을 핥고있는 계집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섭찍한 음식도 구속되어 있기를 싫어하는 계집애에로서는 견딜수 없는 한나절이었을것이었다. 창문을 때어내고 창문 밖으로 나는 여편때는 운동에 소홀이 없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종오심이 없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었던 탓이겠지만 작품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부끄러운 생각이 앞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에서 기대하는 새로운 思想性의 추구와 기성의 낡은 습성을 찌르는 참신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번 응모작을 아무리 열심히 精讀하여도 이것도 저것도 취할것이 없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물리는 風車」, 「어떤狀況」, 「어둠속에서」, 그리고 戲曲 「에덴의 추억」을 미워하지말라」 등이 발견된것은 퍽 다행이라 생각한다. 「어떤 상황」은 광복의 素材로 걷할하고 文章修練이 필요하며 「에덴…」은 主題의 觀念性이 내용에서 여과되어야하겠고, 그런대로 문장이 깔끔하고 소설적 소재를 선택한 것은 「물리는 풍차」라고 본다. 테마를 천착한다면 기대해 볼만 하다.

〈小說家·同門〉

나무 관장은 습기가 차서푸르스름한 버섯으로 덮여있었다. 우리부부는 이집을 힐끔이지않고 천게 연였다는 것을 행운으로 돌리었다. 맛벌이를 하는 우리는 집을 래일 식모에게만 맡기고 집을 비운다는것을 불안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안채를 세를 놓고 뒷채를 추인이 사용하겠다는 이집을 소개받고 우리는 계약을 서둘러서 끝내었다. 내생을 별토 하지 않는 그이였지만, 9년간에 좁은 아파트를 벗어난 흙가본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주인내외는 어린 계집애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주인남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태도가 분명하지 못했고, 좀 허풍스러운 남자인 것 같았다.

이사한지 며칠이 지났을때이었다. 간 원피스를 입은 어린 계집애가 하수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은 것을 보았다. 계집애는 한번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하수도가 막혀 내려가지 못한 물이 형건히 고여있는 곳에 손을 넣고 있었다. 구정물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한참동안을 아이는 그것을 계속하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도 진지해서 마을이, 용기를 잃어갔다.

「얘, 그건 더러운 것이잖니, 그런걸 먹는 것은 매맞을 짓이야」

거의 날카롭다 싶을 정도로 나는 아이에게 미운 불길을 보내고 있었다. 별안간 나타난 나를 보고도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화를 내는 내 얼굴을 보고 씩익 웃고있었다. 별일 아니라는듯 「아줌마, 나 아무것도 않했어요. 버티는것이 아까웠어요」

하더니 천천히 일어서서 너부도 태연하게 맹물에 손을 씻었다. 조그만 나의 불결을 막아낼 수있는 그런 깜찍할을 지니고 있었다. 이 아이와 친숙해 진다는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 같았다.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낭아야하는 그런 여인의 아픔을 겪지못할것 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나였다. 이집에 이사를 와서 아이를 처음 대했을때부터 나는 어떤 두려움을 지니게 되었다. 어쩌다 뒷채에서 아이의 말소리가 들려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바보스런 나를 발견할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퇴근무 집에 돌아서서 문득 아이를 발견하면 아이는 늘 후미진 곳이나 더러운 곳에 있을때가 대부분 이였다. 아이가 춧어먹는 버릇은 습관화 되어있었다. 입에 넣을 수만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입안에 넣고야 마는 성질이었다. 국민학교 선생인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지만 계집애가 늘밖에 나와 놀고 있는것이 걱정이 되어 여러번 부모에게 주의를 시켰지만 계집애는 여전히 아이들과 섞여 놀고 있었다. 한동안 할말을 잃고는 하니 않아 있었다. 낮에 계집애가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은 결코 자기네들 때문은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갔지만 영아원에서까지 그런 버릇이 있을까? 나는 눈만 뜨면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무슨 이유로 핸일로 내가 그들에게 그 어린 계집애에 관한 비밀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가신도 모르겠다. 알파하게 알고있는 아동심리등을 억지로 들추어내기도 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이는 점점 다른일은 무관심, 더 더욱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무슨 이유로 핸일로 내가 그들에게 그 어린 계집애에 관한 비밀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가신도 모르겠다. 알파하게 알고있는 아동심리등을 억지로 들추어내기도 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이는 점점 다른일은 무관심, 더 더욱 아이에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질것 같았다.

구데기가 득실거리는 부패한 음식도 아니고 입으로 갖져갔다. 강아지 밥 그릇을 핥고있는 계집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섭찍한 음식도 구속되어 있기를 싫어하는 계집애에로서는 견딜수 없는 한나절이었을것이었다. 창문을 때어내고 창문 밖으로 나는 여편때는 운동에 소홀이 없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종오심이 없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애착심이 별로 없었던 탓이겠지만 작품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부끄러운 생각이 앞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에서 기대하는 새로운 思想性의 추구와 기성의 낡은 습성을 찌르는 참신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번 응모작을 아무리 열심히 精讀하여도 이것도 저것도 취할것이 없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물리는 風車」, 「어떤狀況」, 「어둠속에서」, 그리고 戲曲 「에덴의 추억」을 미워하지말라」 등이 발견된것은 퍽 다행이라 생각한다. 「어떤 상황」은 광복의 素材로 걷할하고 文章修練이 필요하며 「에덴…」은 主題의 觀念性이 내용에서 여과되어야하겠고, 그런대로 문장이 깔끔하고 소설적 소재를 선택한 것은 「물리는 풍차」라고 본다. 테마를 천착한다면 기대해 볼만 하다.

〈小說家·同門〉

〈金善泰·그림〉

이미 퇴근해서 돌아와 있는 그이도 잠자코 뒷채의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유〉

길게 한숨을 쉬며 있던 과자를 하나깨물며 그이는 부연가 번민하고 있었다. 「큰일이야, 동생연엘 하다 어느 한쪽이 싫다고 하드군」

「피를요?」

무서운듯 몸을 움츠리며 나는 반문했다.

「그런일이 허다 하다고 하드군, 꿰찮겠지, 걱정할 필요 없어」

그이는 처음 심각했던 표정과는 달리, 나를 안심 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는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어쩐지 아이의 존재가 부려움기도 했고, 안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었다. 자기에게 닥아서고 있는 나를 보려니 아이는 금새 포정이 맑아졌다. 아이의 몸에서는 천진스러움이 흐르고 있었다. 조금전 그렇게 지지리는 소리를 내며 울던 애라는 것을 조금도 알수 없었다.

「아줌마, 아까 미미가 나를 보구 마구 욋었어요, 바보 고콘가봐요」

계집애는 안심이나 퉁그란 눈을 더욱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 본다. 그눈엔 정말 미미를 위한 어떤 애정의 표시도 없었다. 처음 이사를 오던 날 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름이었다. 빨간 원피스의 계집애가 눈에 들어왔다 장롱대에 놓아둔 풍자로에서 풀꺼꺼기를 꺼내더니 손가락에 헌겁 철을 해가며 아주 열심히 머리를 타고 떠나가버린 뒤에서 고프다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소 내가」

片은 발동을 걸고 있는 순경을 한마디 했으나 제 정신은 없는 듯했다. 백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마련이었다. 순식간에 닿고나서 오른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신경과민인 것 같습니다. 먹어야 한다니까』

의사는 한약까운에 손을 닦으며 말하고 있었다. 주사를 맞고 한잠을 자고 난 뒤에도 무연가 께름찍한 것이 가슴에 걸리고 있었다. 무엇때문일까? 답답할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계집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깔직스럽게 자

문 책정리를 하고 대청소를 하다보니 점심때가 되었다. 점심을 끝내고 하단청소를 하려 했는데 뜨거운 여름햇살은 온몸을 나른하게 했다. 졸저럼 낮잠을 자는 성질이 아닌데 어렵풋이 잠속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한낮의 가위에 눌려 완전히 잠을 떨쳤다. 불결한 예감이 들었다. 집안의 고요한 정적때문만은 아니었다. 우는 아이의 소리가 들렸다. 누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벌떡 일어섰다. 낮잠을 전것을 후회하고 싶었다. 해는 어지 잘히 기울었고 이내 저녁 준비를 알렸다. 툇돌에 널어둔 빨래생각을 하며 신을 신었다.

「문 문 열어줘요 네, 아줌마 문 열어 줘요. 나 나가고 싶어요. 네」

완전한 울음소리였다. 가슴이 크게 퉈울렸다.

「이 문좀 열어줘요 심신해 죽겠어요. 아줌마~ 아~아~」

또렷이 소리가 나는 곳을 알아내었다. 분명 툇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내 발걸음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황급히 툇방으로 들어가는 부엌문에 다달았을때 부엌문은 굳게 잠겨져있었다. 우는 소리와 벽을 두들기는 소리는 여전했다. 주인의 영혼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아~』

눈앞에 나타난 모습, 그건 너무했다.

「어린 계집애였다」

『패지만도 못한 년들을 어린애 방에 가두고 죄희들만 나가다니』

살살살히 방을 들여보았다. 방안은 여지러웠다. 어린 계집애의 얼굴은 한쪽미리가 돌아져 내렸기. 방바닥을 구르고 있는 밥사발이 너무 작았고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흡사 우리안 같았다. 야생의 짐승이 답답할을 이기지못해 울부짖는 것처럼 아이는 울고 있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착심이 별로 없었던 탓이겠지만 작품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부끄러운 생각이 앞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작품에서 기대하는 새로운 思想性의 추구와 기성의 낡은 습성을 찌르는 참신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번 응모작을 아무리 열심히 精讀하여도 이것도 저것도 취할것이 없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물리는 風車」, 「어떤狀況」, 「어둠속에서」, 그리고 戲曲 「에덴의 추억」을 미워하지말라」 등이 발견된것은 퍽 다행이라 생각한다. 「어떤 상황」은 광복의 素材로 걷할하고 文章修練이 필요하며 「에덴…」은 主題의 觀念性이 내용에서 여과되어야하겠고, 그런대로 문장이 깔끔하고 소설적 소재를 선택한 것은 「물리는 풍차」라고 본다. 테마를 천착한다면 기대해 볼만 하다.

〈小說家·同門〉


東大 지정 寫眞館

□최대의 시설!
□최고의 기술진이 奉仕!
□흑백과 칼라의 완전시설 자랑!

쎄븐寫場

■당신의 영원한 사진은 「쎄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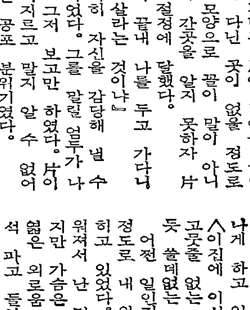
본점 서울중구明洞 2가200번지 국립극장옆 TEL ㉮2272 ㉯1397
지점 서울종로구세종로231번지 국제극장옆 TEL ㉮5557
代表 權 相 · 純

정형외과·미용외과
명도의원
院長 김 현 정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2-1
☎ ㉓ 6957·4338 (UNESCO회관옆)

張 秉 吉 著
韓國固有信仰研究
237面 700원
발행; 서울大學校 文理大 東亞文化研究所

JES의 日本語
☆基礎부터 시작하여 原書解讀까지 各班
☆開講 수시접수
☆時間 AM7.30~PM8.30까지 매시간
☆아카데믹한 분위기와 일류 강사진
☆동국대학생에 한하여 할인함
位置: 종로1가 버스정류장앞 범문사옆
JES 日本語研究所
Tel ㉒ 5822

□ 逐 既 刊 □
東國大學校 敎授
司法試驗 委員
三·四級試驗 委員
警察幹部試驗 委員
廉政哲著
(客觀式) 刑法分析
一九六〇年度 以後에 出題된 司法試驗 三·四級試驗 法院職 警察職等의 各種試驗問題를 綴密히 總整理하고 再分析하면서 解說한 最新版
六百面 一四〇〇원 整
司法新書會刊



*71년도 소비자 보호협회의 최우수 분식점으로 지정.
○입체 음향
○최신 설비
○깨끗한 분위기
삼오종합분식
구·내무부앞 ㉓ 3598

東國大學校 農林大교수 安 思 明 著
現代統計學
—〈理論과 實際〉—
增 訂 版
총 298面 값 1,100원
日 新 社 刊


社告·로 1회 쉽니다.